

5월월간 산업 이슈(05월)

Monthly Industrial Issue

업종별 주요 이슈

정유 '21년 1사분기, 실적 개선에도 웃지 못하는 정유 업계

- 지난해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던 국내 정유사는 1분기 유가상승에 따른 재고관련 이익, 석유 제품의 수요 개선, 비정유 사업부문 호조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흑자로 전환
- 하반기 유가 상승세 지속이 어렵고, 주요 유종의 수요 회복 지연으로 실적은 다시 둔화될 전망이며 중장기적으로도 정유업에 부정적 환경이 예상되므로 보수적 시각에서 모니터링 필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 기대감과 향후 전망

- 최근 D램을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관련 생산지수들도 호조를 보임
- 반도체 품귀현상이 장기화되고 PC, 모바일 등 전방산업의 호조로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
- 또한 과거 설비투자 제약으로 시장은 공급자가 주도하고 있어 시장 호황은 장기화될 조짐
- 다만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 규제가 강화될 조짐이 있어 국내 기업의 대외 리스크 관리 필요

발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선 25%로 확대

-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2012년 RPS 도입시 제정된 의무공급비율 상한선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결정
- 공급인증서(REC) 수급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이 개선되었으나, RPS 의무 대상자들은 부담이 늘어나며 수익성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유통 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 서비스의 필수 인프라인 생활물류의 성장

- 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의 성장으로 생활물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쿠팡, 컬리, 롯데 등 유통사, 네이버, 카카오 등 IT플랫폼 그리고 물류 스타트업까지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 마련과 비대면 소비 일상화로 생활물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지만 유통, IT, 물류 산업 간 경계를 뛰어넘는 경쟁 심화로 업체별 차별화된 접근 필요

건설 건설산업에도 ESG 경영 도입이 확산 중

- 그 동안 건설산업의 특성상 ESG와 다소 거리가 있었으나 최근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면서 ESG를 경영의 주요 목표로 인식하는 건설업체가 속속 늘어나는 추세
-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견 건설업체 및 전문 건설업체 등으로 확산될 전망으로 당행 여신 관리시 해당 기업의 ESG 기준 준수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산업별 경기 트렌드

경기사이클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C10-11. 음식료품	음식료				●		
C13. 섬유	섬유		●				
C14. 의류	의류						●
C19. 정유	정유	●					
C20-21. 화학제품	석유화학			●			
	제약				●		
C22. 고무,플라스틱	고무,플라스틱	●					
C23. 비금속광물	시멘트						
C24. 1차 금속	철강			●			
	비철금속			●			
C26. 전자부품, 영상 통신장비 등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통신장비(휴대폰)				●		
C29. 기계	일반기계		●				
C30. 자동차	자동차			●			
C31. 기타 운송장비	조선		●				
D. 에너지/인프라	재생에너지				●		
F. 건설	건설						●
G. 종합유통	무점포(온라인)			●			
	종합소매업(대형)		●				
	편의점		●				
H. 숙박 및 음식점	숙박(N/A)		●				
I. 운수	해상운송		●				
	항공운송	●					
J. 통신,미디어	통신서비스			●			
	SW/외			●			
L. 부동산 및 임대	부동산						●

업종별 주요 이슈

정유 : '21년 1사분기, 실적 개선에도 오히려 못하는 정유 업계

반도체 :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 기대감과 향후 전망

발전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선 25%로 확대

건설 : 건설산업에도 ESG 경영 도입이 확산 중

종합유통 : 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 서비스의 필수 인프라인 생활물류의 성장

C19. 정유 : '21년 1사분기, 큰 폭의 실적 개선에도 웃지 못하는 정유사들

※ **Summary** : 지난해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던 국내 정유사들은 '21년 1사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되면서 흑자로 전환. 1분기 정유사의 실적 개선은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평가 이익 반영, 석유제품 수요개선, 윤활기유 사업 호조에 기인. 다만 하반기 항공유 등 주요 유종의 수요회복이 제한적이며, 미국과 OPEC+ 의 증산으로 인한 유가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1분기 실적 개선세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 **Comment** : 정유사의 실적은 2분기부터 다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도 에너지전환 가속화, 전기차 시장 성장 등 정유업에 부정적 환경이 예상되는 만큼 보수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

■ 지난해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던 국내 정유사들은 21년 1분기 흑자로 전환

-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던 국내 정유사들은 21년 1분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모습
- 국내 정유사 중 가장 먼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S-Oil은 최근 5년 내 분기 영업이익 중 가장 높은 6,292억원(연결기준)을 기록하였고 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의 1분기 영업이익도 각각 4,128억원, 632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
 - 컨센서스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도(실적 미발표) 5,000억원 내외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

■ 1분기 정유사의 실적 개선은 유가 상승과 석유제품의 수요 개선, 윤활기유 사업 호조에 기인

- 1분기 정유사의 실적 개선은 코로나 충격으로 급락했던 유가의 상승세 전환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이 확대된 것에 기인
 - 지난해 배럴당 40달러 내외를 기록하던 유가는 올 들어 주요국의 경기부양과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수요 개선으로 21년 5월 현재 배럴당 60달러대 까지 상승
 - 1분기 S-Oil, 현대오일뱅크의 재고평가관련 이익은 각 각 2,850억원, 1,500억원을 기록
- 또한 글로벌 석유제품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주요 제품의 판매가 회복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제마진도 완만하게 개선 중
 - 유종별로는 휘발유가 배럴 당 10달러대를 기록하며 마진 개선을 견인
- 한편 정유사의 비정유 사업인 윤활기유 부문도 글로벌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과 마진 확대로 수익성 호조를 기록하면서 정유사의 실적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여파로 국내외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낮춤에 따라 잔사유로 만들어지는 윤활기유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전기차용, 산업용 수요증가로 전체 윤활유 수요는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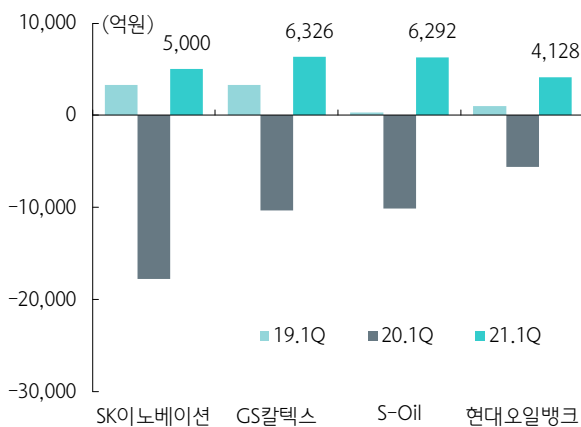
■ 다만 정제마진이 여전히 BEP를 하회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석유제품의 완전한 수요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실적 개선 추세 지속 여부는 불투명

- 지난해 대비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가 회복되면서 지난해 (-)를 기록했던 정유사의 정제마진은 4월말 기준 배럴 당 3.2달러를 기록 중이나 여전히 BEP(\$4~5/bbl)를 하회
 - 정제마진은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수송·운영비 등 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유업계의 보편적인 수익성 지표가 됨
- 최근 백신접종 가속화로 석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4차 대유행 지속으로 단기간 내 수요 회복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
 - 특히 글로벌 전망기관들은 항공유는 22년 이후에나 수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국제유가는 1분기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유가 상승으로 美세일 생산이 재개되고 있고, OPEC+의 감산도 하반기로 갈수록 축소될 것으로 보여 유가는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

■ 1분기 이후 실적도 지난해 대비 개선되겠으나 연간으로는 실적 악화폭을 줄이는데 그칠 전망이며 중장기적으로도 부정적 환경이 예상되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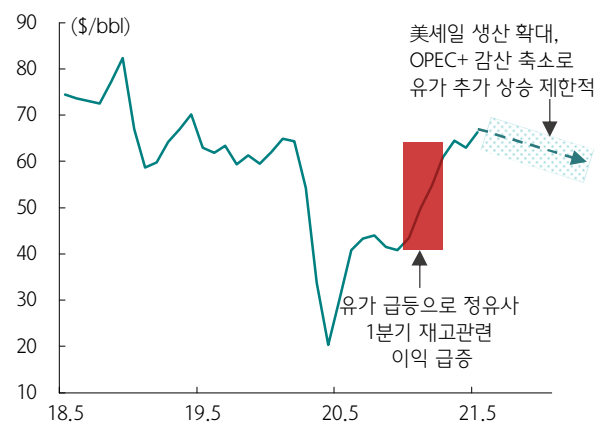
- 정유사들의 실적은 1분기 이후에도 휘발유 중심의 완만한 석유수요 회복과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지난해 대비로는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 다만 1분기 실적 개선을 견인한 재고평가이익은 2분기부터는 기대하기 어렵고, 항공유 등 일부 유종의 수요부진 지속으로 정제마진 회복도 어려울 전망으로 21년 연간으로는 실적 악화폭을 줄이는 수준에 그칠 전망
- 중장기적으로도 각국 에너지전환 가속화, 전기차 시장 고성장 등 정유업에 부정적 환경이 예상되는 만큼 과거 대비 중장기적인 리스크 모니터링이 필요 📌

그림1 | 국내 정유 4개사 1분기 실적



주 : SK이노베이션 21.1Q 실적은 Fn-guide 컨센서스
자료 : Kis-value

그림02 | 하반기 유가 전망



자료 : 페트로넷

C26. 반도체 :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 기대감과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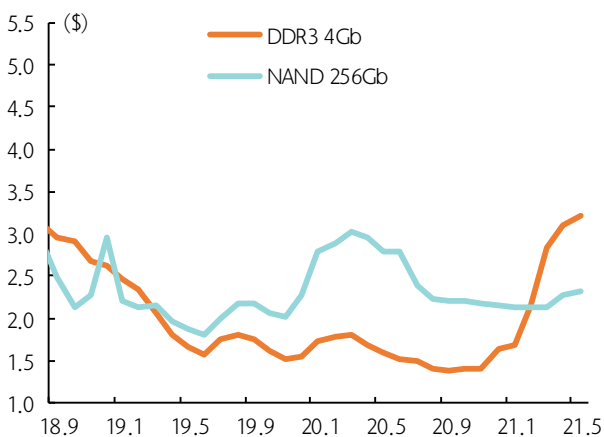
※ **Summary** : 한국 수출의 第一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과 생산지수가 급등하고 있어 해당 시장의 대호황(슈퍼 사이클)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반도체 품귀 현상 장기화와 전방산업 성장으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과거 설비투자 제약으로 공급여건이 한계에 있어 향후 시장 호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음. 정부 역시 이례적인 반도체 수출 전망을 발표하고 삼성 등 국내 기업의 낙관적 전망도 이어짐

※ **Comment** : 이처럼 반도체 시장 전망은 긍정적이나, 美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추가 규제 조짐을 보이고 있어(6月 예정)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의 대외 리스크 관리의 필요

■ D램을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가격이 급등하고, 생산 지수도 호조를 보이며 호황 진입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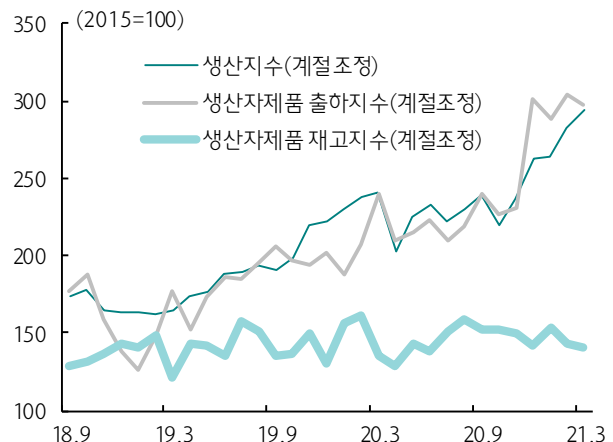
- 장기간 보합세를 유지했던 메모리 반도체 현물가격(Spot Price)이 D램을 중심으로 급등하며 과거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18년) 까지 근접(Price)
 - D램: DDR3의 5월 현물 가격은 3.2\$로 초호황기인(슈퍼 사이클) 18년 7월 이래 최고치
 - NAND: 2개월 연속 상승하며('21년 4월 및 5월) 11개월 연속 하락을 멈추고 반등 조짐
- 반도체 생산 및 출하지수도 '21년 1분기부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반도체 재고지수 역시 하락하고 있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생산 호조도 뚜렷한 상황(Quantity)
 - 국내 반도체 제조업 생산지수: 264.2('21.01) → 282.4('21.02) → 294.5('21.03)
 - 국내 반도체 제조업 재고지수: 153.5('21.01) → 143.8('21.02) → 141.0('21.03)

그림03 |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이(Spot Price)



자료 : Bloomberg,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04 | 반도체 생산·출하·재고지수(계절조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은 ‘반도체 품귀현상 장기화’와 ‘재고축적 수요 증가’

- ‘20년 말부터 시작된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은 공급업체의 생산차질까지 겹쳐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IT, 가전 등 주요 전방산업으로 확산 양상을 보임
 - NXP, Infineon 등 주요 차량용반도체 생산업체들이 정전, 화재 등 자연재해로 심각한 생산 차질을 겪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완전 재가동은 ‘21년 6월부터 가능할 전망
 -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은 IT 및 가전기기에 사용되는 전력 반도체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IT와 가전기기 산업으로 반도체 품귀현상이 확산되었으며, 이미 Apple은 생산 차질 발생
- 또한 반도체 품귀현상과 무관한 전방산업에서도 공급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고 축적 주문을 크게 늘리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속히 증가
 - SK하이닉스의 21년 1분기 컨퍼런스콜에 따르면 “부품 부족을 우려한 고객사의 재고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연중 D램의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21.04)

■ 또한 전방산업은 꾸준히 성장하는 반면 과거 설비투자 제약으로 공급 여건은 제한적




- 코로나19發 언택트 효과로 PC, TV 등 주요 전방산업이 회복되고 기업들의 Digital Transformation(DT)도 가속화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
 - ‘21 주요 전방산업 전망(YoY,%): 모바일(5.5%), PC 및 노트북(4.7%), 클라우드(18.2%)
- 반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침체와(‘19년) 코로나19 불확실성(‘20년 상반기)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설비투자가 위축되어 올해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여건에 한계가 존재
 - 메모리반도체 설비투자에서 생산까지는 ‘통상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해당년도의 공급은 2년 전 설비 투자에 영향을 받음 (‘21년 공급은 ‘19,‘20년 설비 투자에 영향)
 - ‘19년 메모리 반도체 침체로 삼성, SK 하이닉스 등 관련 업체들이 설비투자를 크게 줄였으며, ‘20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불확실성의 여파로 설비 투자가 저조하였음

표01 | 차량용 반도체 기업 생산차질(자연재해)

기업	점유율(순위)	피해 현황(자연재해)
NXP (네덜란드)	10.2% (#1)	- 한파로 미국 공장 정전(21.02) - 웨이퍼 제조 시설 손상(2개) - ‘21년 6월 완전 재가동 전망
Infineon (독일)	10.1% (#2)	- 한파로 미국 공장 정전(21.02) - 상대적으로 피해 적으나 완전 재가동은 ‘21년 6월 전망
Renesas (일본)	8.3% (#3)	- 화재로 일본 공장 피해(21.03) - 20여개의 설비 피해로 완전 재가동은 ‘21년 6월 전망

자료 : 언론 종합,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점유율 및 순위는 2020년 기준)

표02 | ‘21 메모리반도체 전방산업 전망(YoY)

지역/국가	전망치(기관)	비고
 모바일	5.5% (IDC, ‘21.03)	- 1분기 13.9%(YoY) - 5G 및 팬트업이 수요 견인 - 5G 스마트폰 비중 40% 차지
 PC/노트북	4.7% (Omdia, ‘20.10)	- 주로 노트북이 시장 성장 견인 - 정부 보조금의 상당액이 유입 - 일본정부의 DT프로젝트 구매
 클라우드	18.2% (Gartner, ‘20.09)	- 코로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 - 아마존 등 업체 재고 수요 증가 - DT를 위한 기업 수요 증가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메모리 반도체 호황 전망이 이어지고, 정부가 이례적인 수출 전망을 발표하며 실적 기대감 상승**

- 글로벌 조사업체 OMDIA, Gartner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세계 반도체 시장 호황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 역시 메모리 시장 호황 예상
 - '21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전망(YoY): OMDIA(20.2%), Gartner(12.9%), WSTS(13.3%)
- 정부 역시 이례적으로 반도체 수출 전망을 발표하고 산업연구원 등 국책 기관도 두 자리수 수출 증가를 예상하며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
 - '21년 반도체 수출 전망(YoY): 산업통상자원부(10.2%), 산업연구원(13.1%)

■ **2분기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나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 수출 규제 가능성은 리스크**

-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 향후 낙관적 전망과 미래 시장 선도를 위한 투자 강화를 공식화하는 등 국내기업의 호실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
 - 삼성전자: 2분기 서버 수요 강세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실적 개선 전망, 하반기에도 서버 및 모바일 수요 강세로 우호적 업황 예상되고 15나노 D램 및 EUV 공정 투자 강화 추진
 - SK 하이닉스: 2분기 언택트 효과 지속으로 PC, 서버 등 주요 전방산업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세계 설비투자 경쟁에 따른 Lead-time 지연 해결을 위해 하반기 투자 조기 집행
- 하지만 美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중심 공급망을 본격화 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견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의 대외리스크 부상
 - 공급망 점검 발표('21.06): 바이든이 행정명령한 반도체 공급망 점검 발표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미국의 중국 반도체에 대한 장비 및 수출 규제 강화 가능성이 대두
 - 한국 반도체 수출의 對중국 비중은 60%에 달하며, 삼성, SK 하이닉스는 중국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중국 추가 제재 시 국내 기업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표03 | '21 글로벌 반도체 전망(YoY)

기관	구분	시장 규모(억\$)	증감률(YoY)
OMDIA ('20.09)	전체	4,890	8.3%
	메모리	1,516	20.2%
WSTS ('20.12)	전체	4,694	8.4%
	메모리	1,353	13.3%
Gartner ('20.09)	전체	4,741	9.5%
	메모리	1,381	12.9%
3사 평균	전체	4,775	8.7%
	메모리	1,417	15.5%

자료 : 언론 종합,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표04 | 2분기 D램 가격 전망(QoQ)

구분	기존	수정 ('21.04)
PC용 D램	13~18% 상승	23~28% 상승
서버용 D램	최대 20% 상승	최대 25% 상승
평균판매단가 (ASP)	13~18% 상승	18~23% 상승

자료 : Trendforce('21.04), 하나금융경영연구소

D. 발전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선 25%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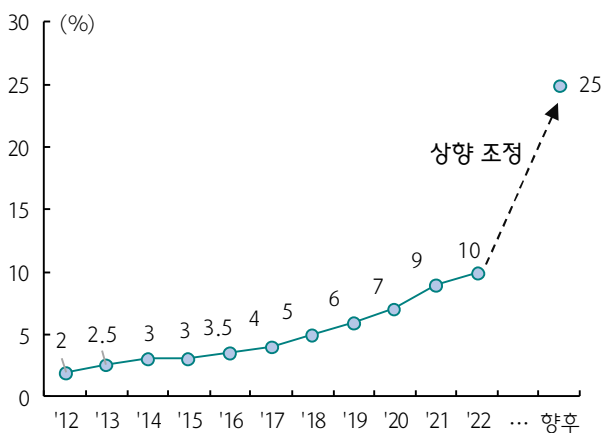
※ **Summary** :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2012년 RPS 도입 시 제정된 의무공급비율 상한선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결정함. 이는 최근의 온실가스 감축기조 강화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에 따른 REC 공급과잉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연도별 세부 의무비율은 9차 전력수급계획 및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금년 하반기 중 발표될 예정

※ **Comment** : REC 수급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이 개선되겠으나, RPS 의무대상자인 발전사들은 REC 조달 의무부담이 늘어나며 수익성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공급의무비율 상한선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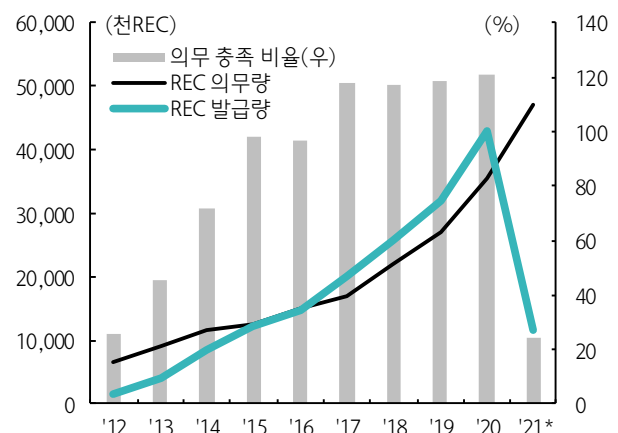
-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2012년 RPS 도입시 제정된 의무공급비율 상한선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결정
- RPS 의무비율은 2021년 9%에서 2022년 10%로 확대된 후 2023년부터 10%로 유지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의 온실가스 감축 기조 강화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등을 반영하여 상한선을 25%로 높이고자 함
- 지난 4월 19일 상기 내용이 포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개정 법률안을 공포했으며, 6개월 뒤인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
- 연도별 세부 의무비율은 9차 전력수급계획(’20.12) 및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12)에서 설정한 신재생 발전비중을 토대로 산출하여 금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

그림05 | 연도별 RPS 의무비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그림06 | 공급인증서(REC) 수급동향



주 : 2021년 REC 발급량 및 의무충족비율은 1분기까지의 발급실적 기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만성적 공급과잉이었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급상황이 개선되며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 국내는 2017년 이후 가파른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로 REC 공급 의무량보다 발급량이 더 많았으며, 의무 충족비율(REC 발급량/REC 의무량)은 2020년 121%까지 치솟았음
- 이로 인해 2016년 1MWh당 17만원대이던 REC 가격이 2021년 들어 3만원대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현물시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악화됨
- 향후 RPS 의무 비율 상향으로 REC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REC 가격 하락이 제한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정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고정가격계약¹⁾ 물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2,050MW가 공고됨

■ **RPS 의무대상자인 발전사들은 REC 의무 부담이 늘어나며 수익성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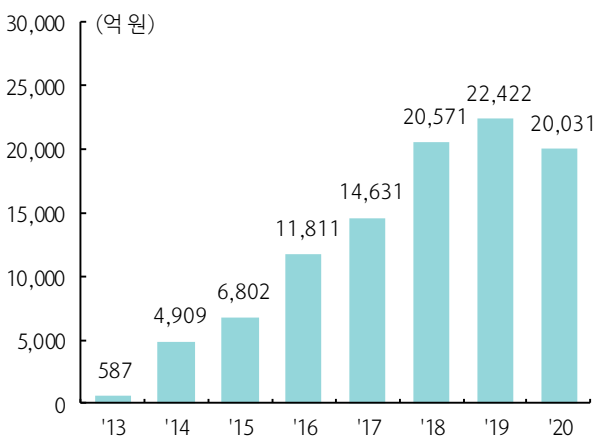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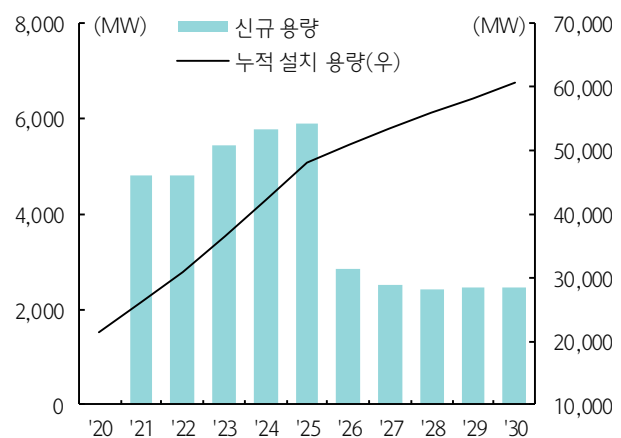
-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갖춘 RPS 의무대상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출한 비용인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2014년 4,909억 원에서 2020년 2조원으로 약 4배 증가하며 RPS 의무부담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한전의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RPS 및 배출권 관련 비용은 2020년 2.9조원에서 2024년 5.7조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2022년 이후 이익 감소 또는 적자를 전망
- 금번 RPS 의무비율 상향 및 제9차 전력수급계획 목표에 따라 2025년까지 RPS 의무량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한전계열 및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이 둔화될 전망 

그림07 | 연도별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금 추이



자료 : 전력거래소(전력시장통계), 산업통상자원부

그림08 | 국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망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20년 동안 체결하는 REC 장기매매계약으로 경쟁 입찰에서 낙찰되면 체결

G. 종합유통 : 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 서비스의 필수 인프라인 생활물류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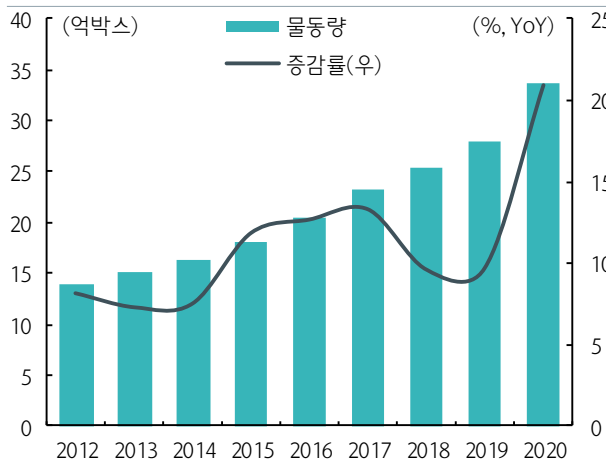
※ **Summary** : 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의 성장으로 생활물류의 중요성이 확대. 쿠팡은 풀필먼트, 3PL, 배달대행 등 물류 전반을 강화 중이며 경쟁 유통사도 온라인 전용 풀필먼트를 확대할 계획. 네이버, 카카오 등은 각각 자사 온라인몰, 모빌리티와 연계하여 물류를 확장. 스타트업은 소상공인 대상 풀필먼트와 이륜차 배송을 중심으로 성장. 정부도 최근 산업 지원 및 참여자 권리, 의무에 대한 법률을 제정

※ **Comment** : 비대면 소비 일상화로 생활물류의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제조, 수출 기반의 전통적 물류 대비 온라인쇼핑몰, IT, 물류 산업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경쟁 심화로 업체별 차별화된 접근 필요

■ 국내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 서비스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필수 인프라인 택배, 쿼, 배달 등 생활물류 서비스의 중요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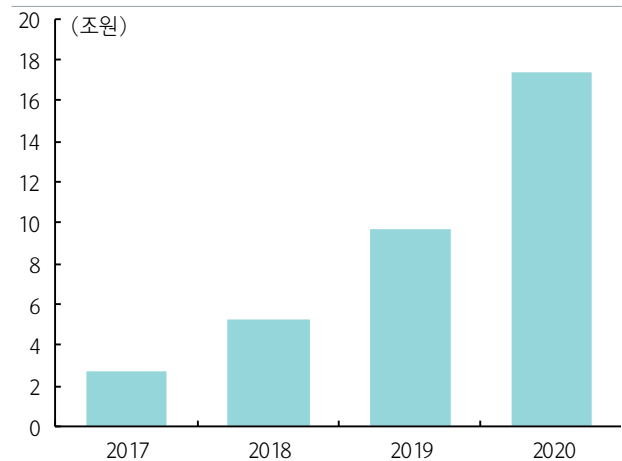
- 국내 온라인 쇼핑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택배 시장의 성장을 야기하였으며,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국내 택배 물동량 급증
 - 2020년 주요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은 전년대비 18.4% 증가
 - 국내 택배물동량은 2020년 33.7억박스로 전년 27.9억박스 대비 20.9% 증가
- 1~2인 가구의 증가로 연 70~80%의 고성장을 이어온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또한 코로나19 이후 외출 기피와 홈코노미 확산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
 - 2017년 2.7조원이었던 온라인 음식 배달 거래액은 2020년 17.3조원 규모로 급성장
-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 서비스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품 수령을 위한 필수적 인프라인 택배, 쿼, 배달 대행 등 생활물류 서비스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그림09 | 국내 택배 물동량 추이



자료 : 한국 통합물류협회

그림10 | 국내 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 거래액 추이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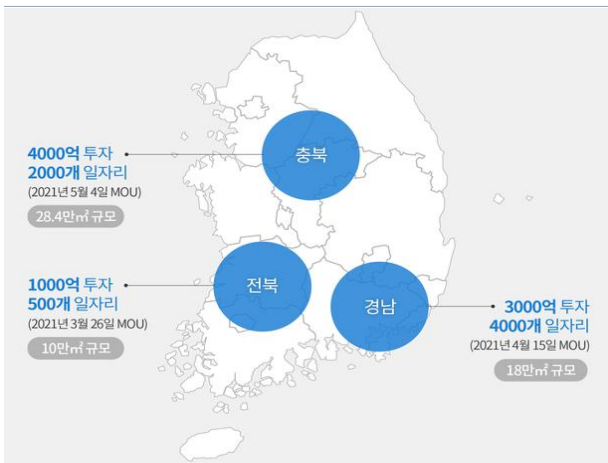
■ **물류를 강조해온 쿠팡은 최근 풀필먼트, 3PL,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 전반에 걸친 사업 확장 중**

- 쿠팡은 미국 증시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 약 5조원을 기반으로 풀필먼트, 3PL, 음식 배달 등 생활물류 전반에 걸친 사업 확장으로 핵심 경쟁력인 물류를 더욱 강화할 계획
 - 풀필먼트 : 물품 보관, 포장, 배송, 재고 관리 과정을 통합한 물류 관리 시스템
- 쿠팡은 2025년까지 수도권 외 7개 지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추가하고 전국을 쿠팡 물류센터 내 10km 이내에 두면서 전 지역 ‘로켓배송’(익일배송)을 현실화할 계획
 - 쿠팡 상장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CJ대한통운에 이은 국내 2위 규모의 물류회사로 150개 이상의 물류센터(연면적 약 70만평)에서 수도권, 제주 지역의 로켓배송을 제공
 - 2021년, 쿠팡은 충북, 경남, 전북 지역 지자체와 총 8천억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
- 쿠팡은 내부 물량 급증에 따른 외부 물량 비중 축소로 자진 반납하였던 택배업 자격을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를 통해 지난 1월 재취득하면서 3PL 영역 확장이 가능해짐
 - 쿠팡 로지스틱스는 택배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운송사업자 자격을 2019년에 반납하였으나 2021년 재취득하였으며, 당분간은 내부 물량 소화에 집중할 계획
- 또한, 음식배달 서비스 ‘쿠팡이츠’을 위한 전담 자회사 ‘쿠팡이츠서비스’를 설립하고 단건배달을 통해 배송대기 시간을 축소시키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 쿠팡 이용자 수는 2020년 8월 기준 74.8만명으로 전년동월 17.4만명 대비 329.9% 증가

■ **쿠팡의 경쟁사인 유통업체들 또한 온라인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활물류 인프라를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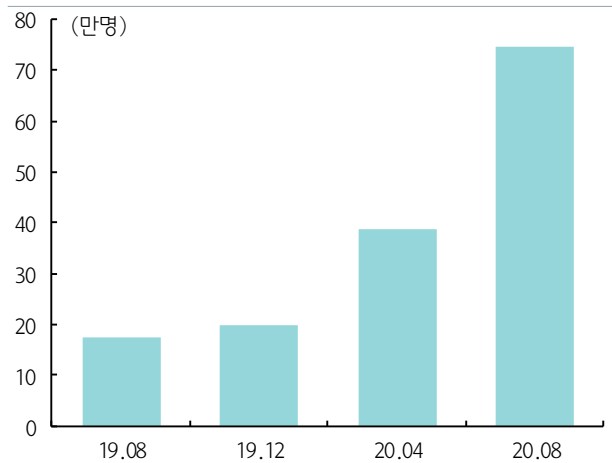
- 쿠팡의 공격적인 투자로 온라인 쇼핑 시장의 물류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사인 유통업체들은 택배사와의 협업과 자체 물류센터 투자를 통해 배송 경쟁력 강화

그림11 | 미국 상장 이후 쿠팡의 물류 센터 투자



자료 : 쿠팡

그림12 | 쿠팡의 음식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월 이용자 수



자료 :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

-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11번가와 컬리(마켓컬리 운영)는 각각 우정사업본부와 CJ대한통운 등 택배사와의 협업으로 배송 경쟁력을 강화
 - 오픈마켓인 11번가는 우체국 택배를 통해 오늘 발송 서비스를 전 영역으로 확대 계획
 - 마켓컬리 운영사인 컬리는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운영되었던 새벽배송을 CJ 대한통운을 통해 충청권으로 확대하는 한편 2.5만여평 규모의 김포 물류센터 구축으로 수도권 배송 강화
 - 기존 오프라인 유통사인 롯데와 신세계 또한 자사 온라인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물류 전용 풀필먼트 센터를 추가 구축할 계획
 - 롯데 : 2022년 완공을 목표로 3,000억원 규모의 충북 진천 메가허브 터미널 구축 중
 - 신세계 : SGG닷컴은 물류센터 확충을 위해 이마트로부터 1.3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
- **국내 최대 디지털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온라인몰, 모빌리티 사업과 연계하여 온디맨드 수요에 대응 가능한 물류 플랫폼을 구축 중**
-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 1위로 성장한 네이버와 ‘카카오T’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1위를 수성 중인 카카오는 각각 온라인몰과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물류 사업을 확장
 - 2020년 네이버 온라인몰 거래액은 27조원으로 22조원의 쿠팡을 제치고 국내 1위 차지
 - 네이버는 물류 강화를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위킵 등 관련 스타트업에 총 26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CJ대한통운과는 3,000억원의 지분 교환으로 협업 관계 강화
 - 소상공인 전문 인력, 동대문 패션 등 틈새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스타트업을 통해 다양한 소상공인 니즈를 충족시키는 한편 CJ대한통운을 통해 대규모 물류도 처리 가능하도록 함

표05 | 국내 유통사들의 온라인 물류 강화 전략

업체명	내용
11번가	-우체국 택배와의 협업으로 제한적이었던 오늘 발송 서비스를 전 영역으로 확대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택배’ 서비스를 도입
컬리	- CJ대한통운 자체 물류센터를 통한 풀콜드방식 배송으로 충청권에도 새벽배송 도입 - 컬리는 현재 죽전(상온), 장지(상온·냉장), 화도(냉동) 등 4곳의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며 국내 최고 규모의 신선식품 취급이 가능한 김포 물류센터 오픈 계획
신세계	- 신세계 그룹의 SSC닷컴은 2022년까지 물류 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 1조 3,118억원을 이마트로부터 조달 - 2024년까지 물류센터 7곳을 추가할 계획
롯데	-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충북 진천에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택배 메가허브 터미널을 구축 중 - 연면적 18.4m ² 로 약 3,000억원 투자 예정 - 메가허브를 통해 자사 백화점, 마트, 온라인몰 물량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판매자 재고를 통합 관리할 계획

자료 : 각 사, 언론자료

표06 | 네이버의 2020년 물류 스타트업 투자 내역

회사명	사업내용	투자금액	지분율(%)	투자집행일
위킵	풀필먼트	25억원	12.5	3월
에프에스 에스	풀필먼트	30억원	15.4	3월
딜리셔스	동대문 특화 풀필먼트	76억원	8.97	3월
두손컴퍼니	동대문 특화 풀필먼트	13억원	7.43	3월
아워박스	물류 풀필먼트	20억원	5.7	8월
브랜드	동대문 특화 풀필먼트	50억원	1.97	9월
아비드이엔 에프	모바일 도매센터	50억원	12.5	9월

자료 : 네이버

- 카카오의 경우,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를 통해 강점인 모빌리티와 IT기술을 기반으로 화주, 선주, 창고를 연결하는 온디맨드 플랫폼을 통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카카오T’ 앱에서 퀵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면서 여객운송(택시)에서 화물운송(퀵)으로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추후 자전거, 화물차, 도보 등도 추가될 수 있음

■ **물류 관련 스타트업은 소상공인 대상 풀필먼트와 이륜차 기반의 배달 대행을 중심으로 성장**

- 물류 관련 스타트업 업체는 특화된 전문성을 강조한 소규모 풀필먼트 서비스와 최근 단기간에 급성장세를 보이는 이륜차 기반 마이크로물류를 중심으로 성장
- 풀필먼트 업체들은 상품 관리, 배송 처리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하거나 식품, 패션 등의 배송 및 거래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
 - 위킵 : 소상공인 대상의 전문 풀필먼트 인력을 운영, 팀프레시 : 식품 배송을 위한 콜드체인 제공, 브랜드 : 동대문 패션 시장의 거래 관행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
- 이륜차 중심의 마이크로 물류 시장에서는 바로고, 생각대로, 메쉬코리아 등이 경쟁하고 있으며 음식 배달을 중심으로 점차 배송 물품 범위를 확대 중

■ **정부에서는 산업 지원 방안, 시장 참여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을 규정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

- 생활물류 관련 법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관계 부처의 대책 마련이 이어져 왔으며, 마침내 2021년 1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정됨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이전에는 택배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적용되었으며, 이륜차 배달 대행은 법적 기반이 없었음

표07 | 국내 주요 물류 스타트업

구분	회사명	내용
풀필먼트 서비스	위킵	- 자체 플랫폼을 통해 쇼핑물, 물류센터, 택배사를 연동하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매자 대상으로 풀필먼트 인력(위킵맨)을 배치하며 모든 과정을 관리
	팀프레시	- 콜드체인 전문 풀필먼트 서비스로 온라인 식품 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새벽배송, 풀필먼트, 화물주선 서비스 등을 제공
	브랜드	- 다수의 도매상과 소매상이 연결된 동대문 거래 관행에 맞추어 소매상 출고 요청에 도매상 정보가 연동되어 사입, 검수, 포장, 배송까지 처리하는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
이륜차 배달 대행	바로고	- 국내 이륜차 배달 대행 서비스의 선도 업체로 지사 1,000여개, 등록 라이더 5만명 등을 보유 - 2020년 거래액은 전년대비 166% 증가한 2.9조원을 기록했으며 음식 배달 위주에서 화장품 및 생활용품으로 사업 확대 계획
	생각대로	- 모기업인 인성데이터는 국내 퀵 서비스 중개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한 공유망 1위 업체 - 모기업이 보유한 공유망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를 통해 배달 대행에서도 점유율 확대
	메쉬코리아	- 450여개의 주요 도심에 소형 물류거점(부류스테이션)을 보유하여 마이크로 물류에 특화된 - 경쟁 이륜차 배송 업체 대비 B2B 사업에 특화(이마트, 홈플러스, SSG 닛켄, 올리브영, 맥도날드 등이 고객)

자료 : 각 사, 언론자료


-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산업의 대한 정의, 각 참여자(사업자, 영업점, 종사자)의 의무 및 권리,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소비자 권리 보호 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
 - 생활물류 서비스업을 택배서비스업(화물차)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이륜차)로 정의하고 종사자 권익 보호, 산업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손해 배상 기준 등을 명시
 - 다만, 화물차와 이륜차로 국한되면서 드론, 도보, 승용차 등 배송 수단 다양화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지원 기준과 표준 계약서 등 하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한계
- 온라인쇼핑, IT, 물류 산업 간 융복합이 진행 중인 생활물류 시장은 비대면 소비 일상화로 성장이 예상되지만, 산업 간 경쟁 심화에 따라 업체별 차별화된 접근 필요
- B2C 중심의 생활물류는 기존의 제조업, 수출 지원 등의 B2B 중심 물류와 비교하여 신속한 대응, 다품종 소량 배송 등이 필요해지면서 디지털 기술과의 활발한 융복합, 도심지 근처의 대규모 투자 비용 등의 특성을 지님
 -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일반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대량의 정보 처리 능력, 다수의 배송 인력, 도심지 근접의 입지 등이 필요
 - 이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IT, 물류 산업 간 융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해당 기업 간에 경계를 뛰어넘는 합종연횡과 경쟁 심화가 나타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온라인몰 아마존과 물류 업체 페덱스의 경쟁 심화로 서로 간의 배송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물류업체 인스타카트는 월마트와 온라인 식품 배송에서 1~2위를 다투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생활물류 시장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적 적합성 및 주도권 경쟁 결과에 따른 업체별 차별화된 접근 필요
 - 생활물류서비스법의 한계(배송 수단 다양성, 하부 세부 규정 마련 등)로 인한 추후 보완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여객 운송업의 '타다' 사례와 같은 규제 리스크 존재 

표08 |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업종 정의	- 생활물류서비스업을 택배서비스업(화물차)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이륜차)로 정의
권리 및 의무	- 택배서비스업의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정의와 함께 각 참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 - 종사자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안전보건 관리 위무가 주요 내용
산업 발전	-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과 인프라 설치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소비자 보호	- 소비자 손해 발생 시, 사업자도 영업점, 종사자와 연대하여 손해 배상 - 서비스 약관 제정 및 신고를 의무화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13 | 생활물류와 전통물류와의 차이 비교

	전통적물류	생활물류
비즈니스 모델	• B2B 위주 • 제조 및 수출입 지원	• B2B+B2C • 국민 생활편의 지향
서비스	• 분업적 프로세스 • 조달, 보관, 운송의 분리	• 융복합 활발 • 물류+유통+ICT
기술	• 노동력 기반	• IoT,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입지	• 교외 • 공장 근처	• 도심 근처(수도권 등)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F. 건설업 : 건설산업에도 ESG 경영 도입이 확산 중

※ **Summary** :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산업에도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확대되고 있는 중. 건설산업은 자연에 인위적인 변형을 가하는 속성상 ESG와 상반되는 특성이 있었으나 기업의 사회적 기여가 강조되면서 필수 요소로 인식되는 중. 다만, 현재까지는 주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쉬운 환경(E)에 방점이 놓이고 있으며 지배구조(G)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Comment** : 자본시장도 ESG 경영이 강조되는 만큼 건설업 여신관리에 있어서 기존 재무역력 외에 해당 기업의 ESG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ESG가 경영 목표의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

- 최근 들어 산업 각계에서 부각되고 있는 ESG 경영이 일반적으로 ESG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인식되던 건설업계에서도 주요한 경영 목표로 대두되는 중
 - 건설업은 생산활동 과정에서 자연의 훼손을 전제로 하고 있어 ESG와는 모순되는 업태
- 건설업계의 ESG 경영은 과거 ‘지속가능한 경영’ 측면에서 고려되기는 했으나 경영전략의 주요 목표로 인식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나큰 변화
 - '08년 삼성물산이 업계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넓은 의미의 ESG 경영은 오래 전부터 주요한 요소로 인식되고는 있었음
-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최근의 분위기와 더불어 자본시장에서 ESG를 중시하는 기업이 우대 받는 등 실질적인 요인도 영향
- 특히, 국내 건설자금 조달 뿐만 아니라 해외 건설 수주를 위한 국내외 금융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건설업체의 ESG 경영 중시 여부는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

표9 | 국내 건설업체 ESG 보고서 최초 발간 시기

년 도	기 업 명
2008	삼성물산
2010	현대건설, 대림산업(現 LD E&C), STX건설
2011	GS건설
2012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2013	롯데건설
2014	두산건설
2015	대보건설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2010)

표10 | 기관투자자의 ESG 요구와 대응

투자자	대상기업	대응
APG	에어버스, 필립모리스 등 159개 기업('20.6.1. 기준)	무기제조 등을 이유로 투자 배제
NBIM	아보이티즈 파워, 듀크에너지, 콜인디아 등	환경파괴 및 무기제조, 담배판매 등을 이유로 투자 배제
BlackRock	엑손모빌, 스탠다드 차타드 등 53개 기업	환경오염개선 미흡 등으로 이사 선임 반대 등 의결권 행사
Vanguard	차이나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등	중국 군수 관련 기업 투자 금지로 주식 매각
SSGA	ESG 저성과 대기업	ESG 개선안이 미진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

자료 : 삼성KPMG(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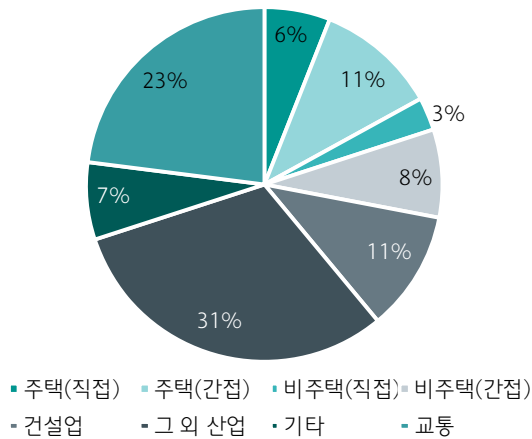
■ 건설업은 생산과정 및 생산물의 관리운영 전반에서 ESG와 대치되기 쉬운 산업

- 건설업은 토지라는 자연 기반에 인위적인 변형을 가한 후 인공물(건축물)을 설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 또한,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보수 과정에서 대량의 자원과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다량의 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를 배출
 -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 : 건설 및 건물유지 39%, 교통 23%, 산업전반 31%, 기타 7%
- 반 영구적인 건축물 기능 유지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철근 및 콘크리트, 석재 등은 생산과정에서 자연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
 - 제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 : 철강 24%, 시멘트 18%, 화학 12%, 플라스틱 6%

■ 외부불경제 역제를 위한 규제 및 민원의 대상인 관계로 부패 발생 가능성도 높은 산업

- 건축물은 설치 후 주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원상복구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 강력한 인허가 과정에서 외부불경제 역제를 위한 정부 등의 강력한 규제가 전제됨
- 또한, 건축물 인근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민원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일반 제조업보다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산업
 - ESG 경영 목표 달성 실패 외에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재무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빠른 기간 내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뇌물, 회유, 환경영향평가 등의 수치 조작 등과 같은 부정이 발생하기 쉬웠으며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해 부패 발생이 잦아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기 쉬운 한계점이 존재

그림14 | 글로벌 이산화탄소 발생 비중



자료: IEA(2020)

표11 | 산업별 부패지수

산업 구분	부패지수	산업 구분	부패지수
농업	7.1	어업	6.6
경공업	7.1	중공업	6.5
항공업	7.0	제약의료	6.4
IT	7.0	발전업	6.4
금융업	6.9	광업	6.3
임업	6.9	석유가스업	6.2
소매업	6.8	부동산 및 법률서비스	6.1
통신업	6.7	유틸리티	6.1
운수업	6.7	공공계약 및 건설업	5.3
국방	6.6	평균	6.6

주: 낮을수록 뇌물 제공이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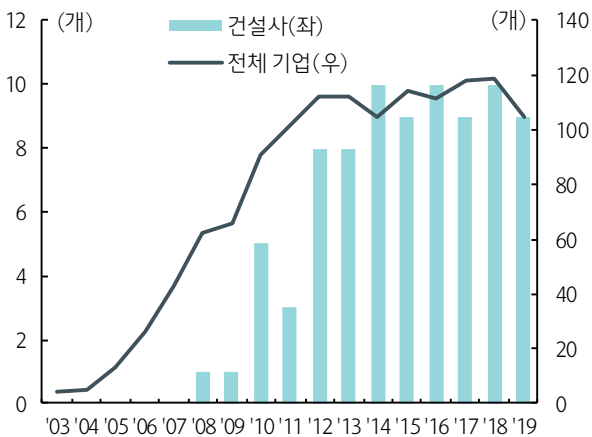
■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은 다른 산업과 비슷하며 최근 동참을 선언하는 기업도 증가

-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2008년 처음 발간되는 등 타 산업에 비해 관심은 다소 늦었지만 2013년 이후 꾸준히 10건 내외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발간되는 등 관심은 확산 중
 - 건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6% 내외)을 감안하면 타 산업과 유사한 발간비율(건설연, 2020)
- 지금까지는 ESG 경영이 상장 대기업을 화두였으나 최근에는 종합건설 중견기업 및 전문 건설업체로 확산되는 등 건설산업의 ESG 경영이 보편화될 전망
 - 전문 건설업체 ESG 경영 도입 지원을 위해 원도급업체인 대기업 건설사가 평가전문업체와 협업하여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사례도 존재(SK건설, 포스코건설 등)
- 단, ESG 경영은 상대적으로 기술력과 재정 여력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해 중소 종합건설업체 및 영세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평가기준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

■ 건설업 ESG 경영은 'E'에 다소 치우친 반면, 지배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은 한계

- ESG 경영을 추진하는 대기업 건설사들은 주로 환경(E)부문에 강점을 보이는 반면 지배구조(G) 분야에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
- 대기업 건설사들은 높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공법의 개발, 수처리 또는 신재생에너지 진출 등을 통해 환경 부문에 있어서 가시적 성과를 보임
 -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개선 효과도 기대 가능
- 반면, 지배구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여전히 오너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고수하고 있어 개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 비상장, 중소 건설사의 경우 공시의무가 적어 지배구조 부문의 취약성이 더욱 부각

그림15 | 국내 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추이



자료: 지속가능경영원, 한국표준협회

표12 | 주요 건설업체 ESG 평가 결과

회사 명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삼성물산	A+	A	B+
현대건설	A+	A	A
GS건설	A	B+	A
대우건설	A	B+	B+
DL E&C	A	B+	B+
삼성엔지니어링	A	A+	A
현대엔지니어링	C	B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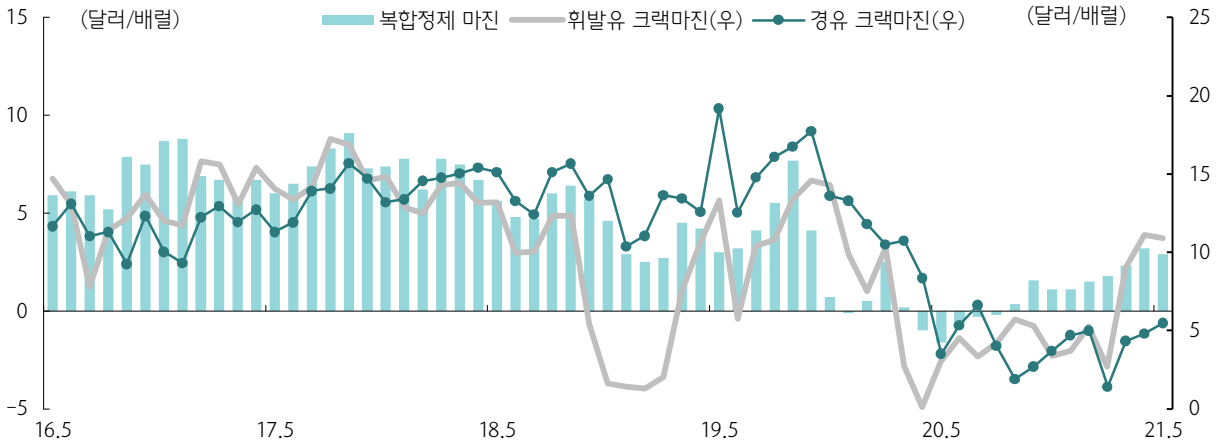
주: 평가 단계는 S, A+, A, B+, B, C, D의 7단계
 자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산업별 주요 지표

정유(C19)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16 | 정제마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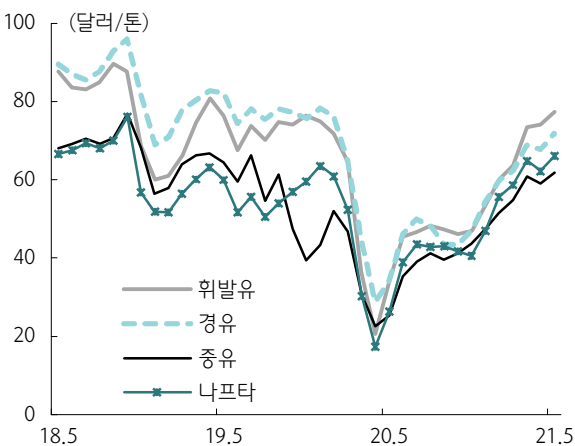


자료: 페트로넷

■ 최근 경기회복 기대와 석유제품의 수요개선으로 정제마진 (+) 지속 중이나 아직 BEP는 하회

-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감 고조로 석유 수요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반기 까지 OPEC+의 감산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글로벌 석유의 수급상황이 타이트해지면서 유가는 상승 중
- 미국을 중심으로 휘발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휘발유 크랙마진은 배럴 당 10달러를 넘어섰으나 항공유과 같이 아직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유종이 다수 존재하면서 복합정제마진은 아직 BEP를 하회하는 배럴 당 2~3달러 수준에 그침

그림17 | 석유제품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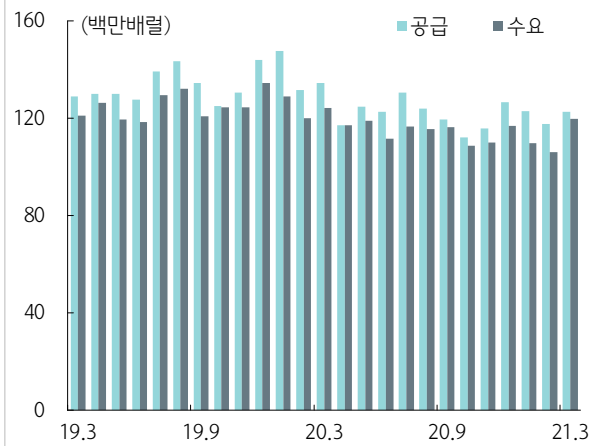


자료: 페트로넷

유가 상승,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요 석유 제품 가격은 상승 중

-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가 고조되고, 미국 및 중국 석유제품 재고 감소로 주요 제품의 가격은 상승 중

그림18 | 국내 석유정제품 수급 추이



자료: 페트로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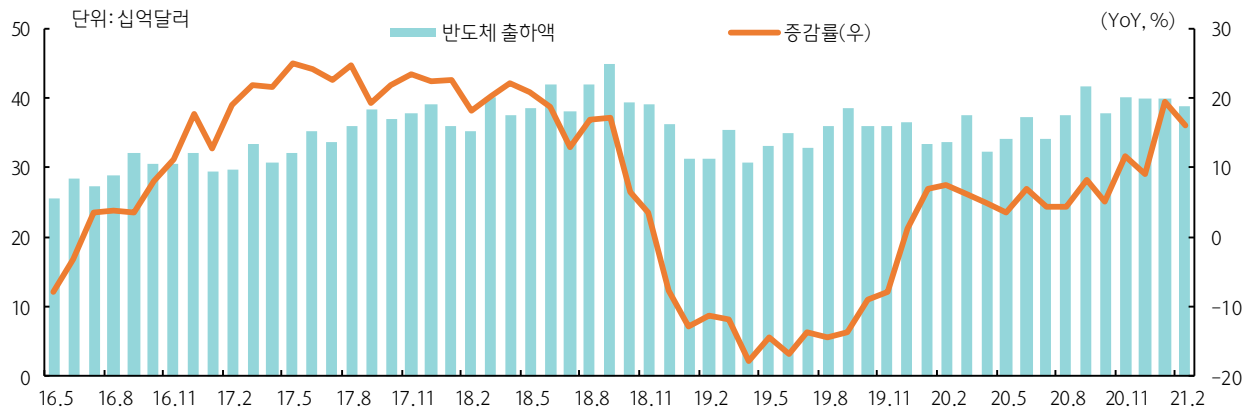
■ 석유제품 수요 회복으로 공급과잉 다소 완화

- 석유제품 수요가 완만하게 회복되었고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조절하면서 수급상황은 다소 안정
- 3월 석유제품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공급과잉수준(공급-수요)은 지난 1년 내 최저 수준

반도체(C26)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할방** 둔화

그림19 | 전 세계 반도체 출하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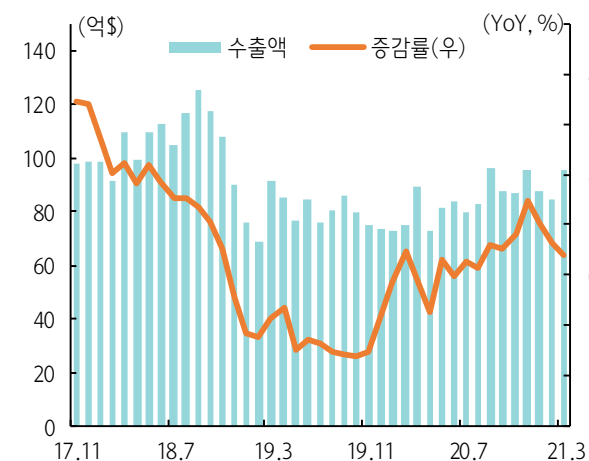


자료: WSTS

■ 글로벌 반도체 재고 축적 수요 증가로 세계 반도체 시장은 호조의 성장세 지속 중

- 2월 세계 반도체 출하액은 388억 달러로 16.0% 증가(YoY)하며, 2개월 연속 두 자리수 성장을 이어감
- 세계 반도체 출하 증가율(YoY,%): 11.6('20.11) → 9.0('20.12) → 19.5('21.01) → 16.0('21.02)
- 2월 지역별 출하액 증가율(YoY,%): 8.0(북미), 7.7(유럽), 11.3(일본), 20.7(아시아)

그림20 | 반도체 수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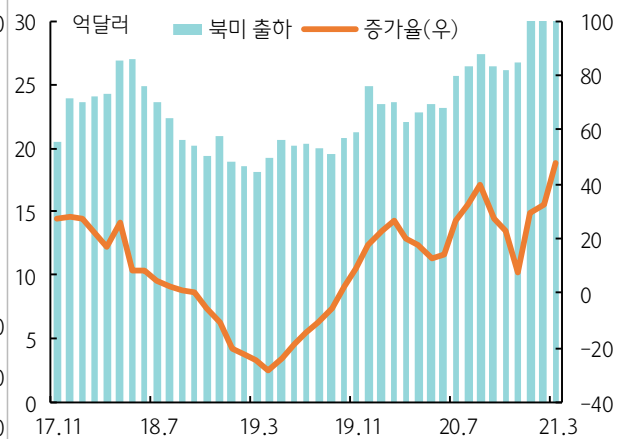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 반도체 수출 견조한 성장세 지속(+7.9%)

- 3월 반도체 수출은 95.7억달러로 7.9% 성장(YoY)
- 견조한 수요로 메모리 및 시스템 동반상승 (9개월 연속)
- 메모리 현물가격 급등으로 고정가격 역시 향후 상승이 예상되어 수출 실적 호조가 보다 뚜렷해질 전망

그림21 | 북미 반도체 장비 출하



자료: SE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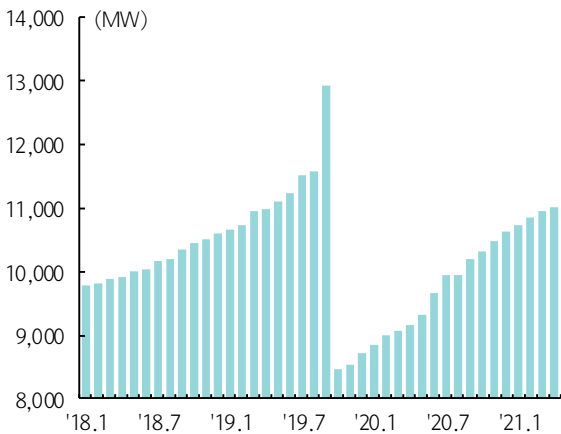
■ 북미 반도체 장비 출하 증가율 성장세 지속

- 3월 북미 반도체 장비 출하 성장세 지속(47.9%,YoY)
- 북미 장비 출하는 반도체 시장을 6개월 정도 선행
- '20년 하반기 이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며 세계 반도체 시장의 긍정적 전망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

에너지(D)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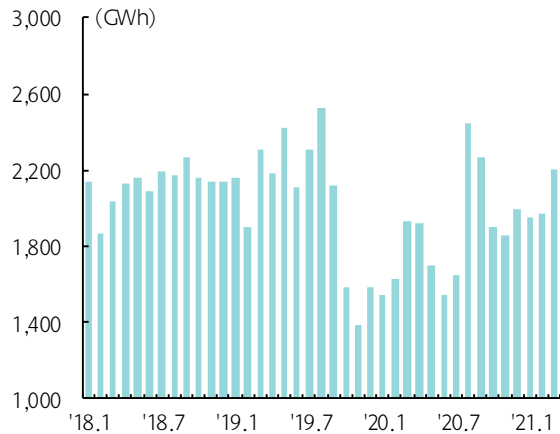
그림22 |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전력거래소 등록기준)



주 : 2019년 10월부터 폐기물은 재생에너지에서 제외
자료: 전력거래소

- '21년 4월 신재생 설비용량 11,002MW
- 전월대비 태양광 63MW, 바이오에너지 16MW 등 증가
- 태양광중심 설비 확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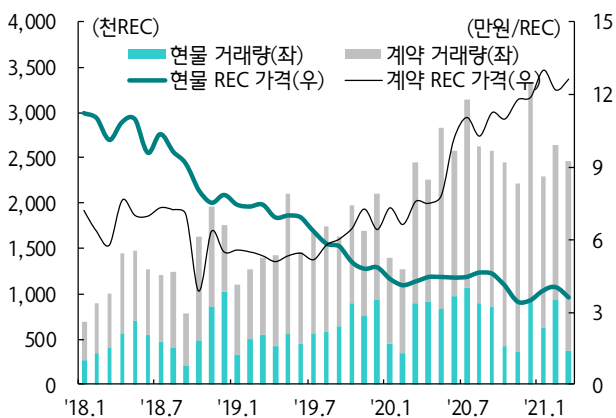
그림23 |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전력거래소 등록기준)



자료: 전력거래소

- '21년 3월 신재생 전력거래량 2,204GWh
- 2021년 3월 전력거래량 전월대비 11.6% 증가, 전년동월대비 14.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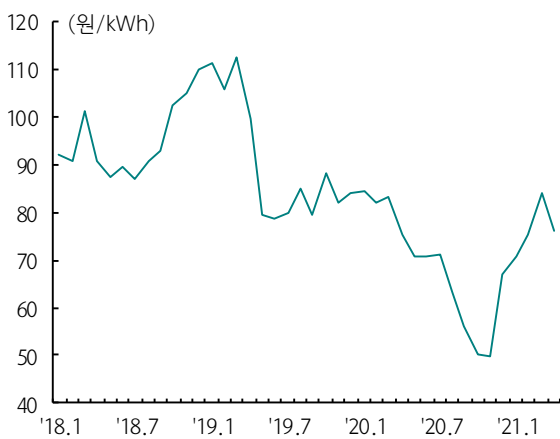
그림24 | 평균 REC 거래가격 및 거래량



주 : 거래량 및 금액으로부터 계산한 평균 REC 거래가격으로 실제 계약가격 및 현물가격과 차이 존재
자료: 전력거래소

- '21년 3월 계약REC 12.7만원, 현물REC 3.6만원
- (거래량) 전체 24만REC로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계약REC 중심 거래 확대 추세 지속
- (가격) 현물가격 중심으로 약세 지속, 계약REC는 상승

그림25 | SMP 동향



자료: 전력거래소

- '21년 4월 SMP 76.35원/kWh
-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1년 4월 SMP는 전월대비 9.3% 하락, 전년동월대비 1.3% 상승

유통(G)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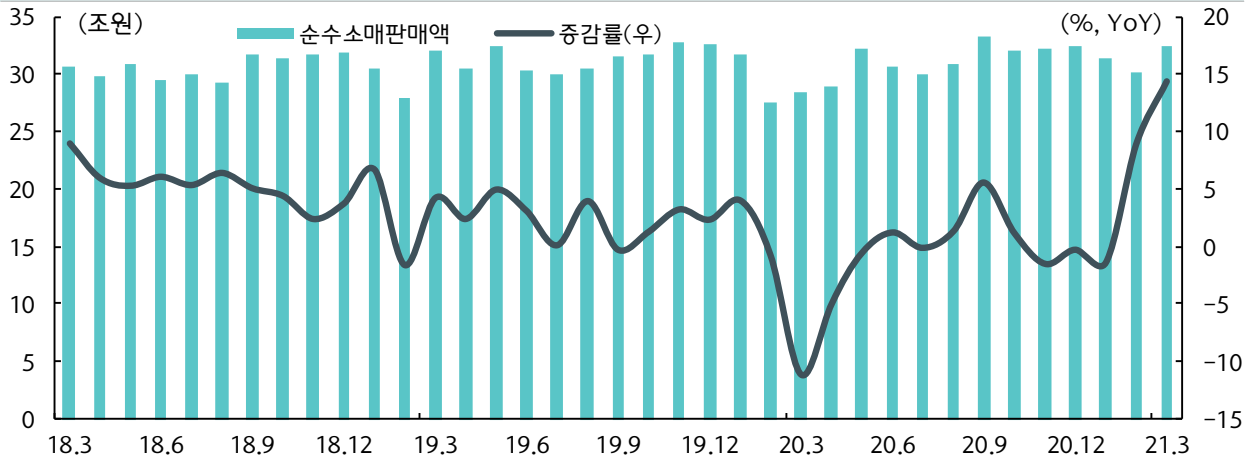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26 | 순수소매판매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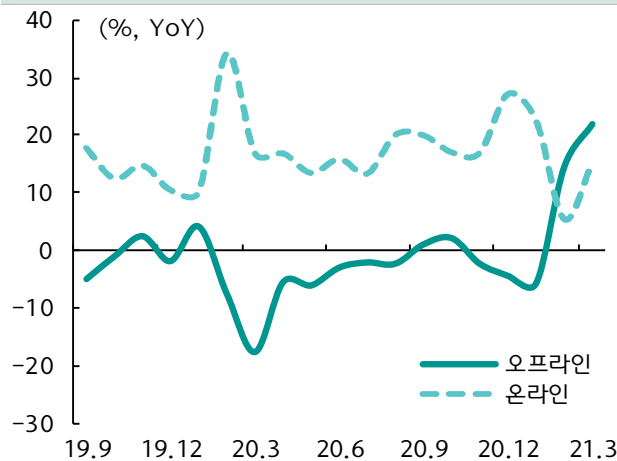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3월, 코로나19 기저효과와 이연 소비가 더해지면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 순수소매판매액(자동차 및 연료 판매액 제외)은 전년도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기저효과와 함께 봄 프로모션 시즌을 맞이하여 이연된 소비가 실현되면서 2020년 3월 전년동월대비 14.4% 증가

그림27 | 주요 오프라인 업체들의 매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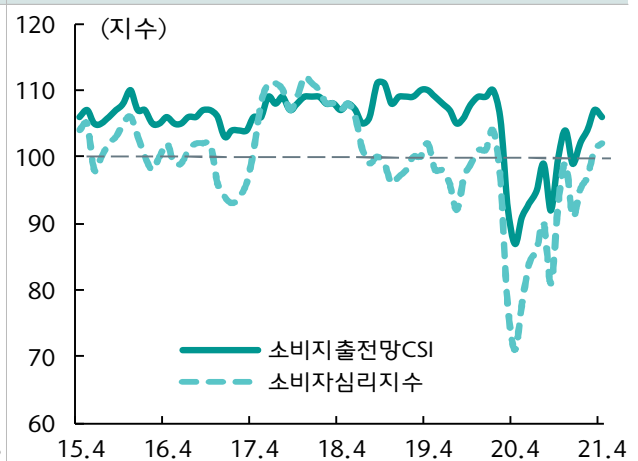
주: 오프라인-편의점(3사), SSM(4사), 백화점(3사), 대형마트(3사)
온라인-온라인판매중개(4사), 온라인판매(9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3월, 온·오프라인 모두 성장세

- 지속적인 침체를 보여 왔던 오프라인인 기저효과와 이연 소비로 인해 3월에는 YoY 21.7%의 높은 성장률 기록
- 온라인은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3월에도 패션 부문이 회복되면서 15.2% 성장

그림28 | 소비 심리 지수, 소비 지출 전망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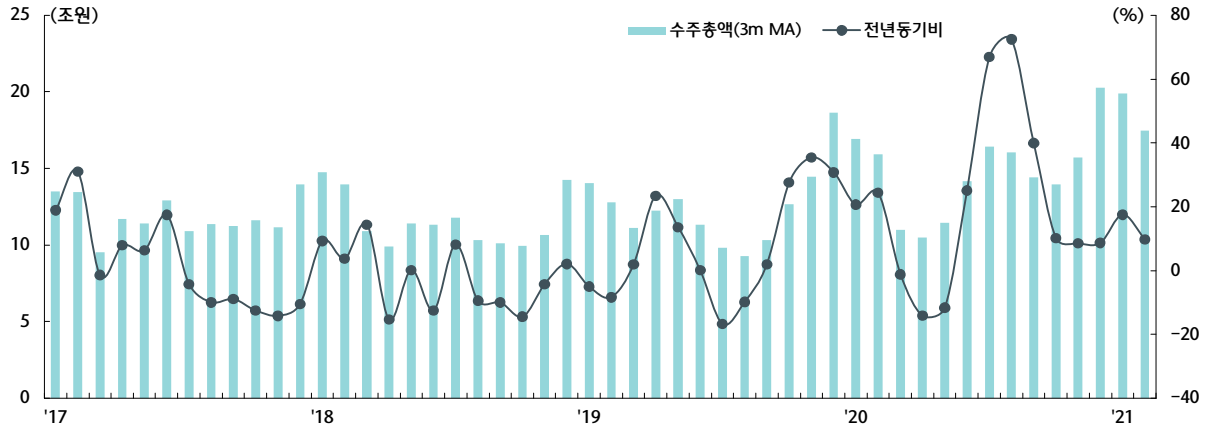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소비자심리지수 최고치 기록

- 코로나19 진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심리지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1년 4월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고치인 102를 기록
- 소비지출전망CSI는 전월대비 1p 하락한 106 기록

건설업(F)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29 | 건설사 수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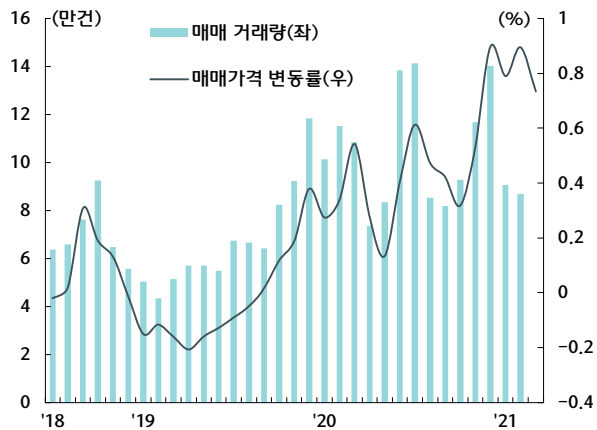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주택경기 활황 장기화에 힘입어 건설수주 증가세 지속

- 정부의 주택수요 억제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등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택을 중심으로 건설수주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어 '20년 이후 건설수주액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중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 억제 외에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하고 있어 향후 정부 주도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건설 수주는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그림30 | 주택 매매가격 및 거래량 (변동률의 경우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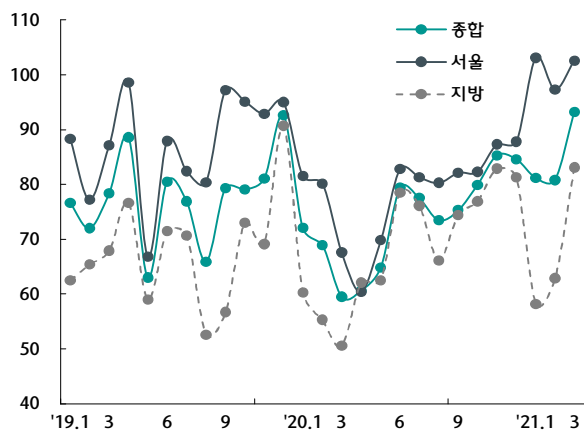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 높아진 가격수준으로 매매거래는 크게 위축

- 주택가격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
- 다만, 높아진 가격수준, 통계적 반락 등의 원인으로 주택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10%p 이상 감소

그림31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전국에 걸쳐 건설사 체감경기는 양호한 편

- 주택시장 장기 활황에 따라 수도권 외 지방에까지 건설사들의 체감경기는 크게 개선
- 특히, 지방 미분양이 1만호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주택분양 경기가 크게 호전

하나 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02-2002-2683
e-mail 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